# “상월 원각 대조사 가르침 새겨 정진하자”

**천태종 6월 3일 단양 구인사서**
**상월 대조사 열반 50주기 법회**
**각 종단 수장 등 사부대중 운집**
**윤 대통령 “국민 위해 힘쓰겠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 열반 50주기 추모법회에 운집한 사부대중.

충북 단양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창건하고 한국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50주기를 맞아 가르침을 되새기고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법석이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6월 3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열반 50주기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단 대덕스님들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및 이사스님, 김영환 충북도지사,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신동욱·엄태영·임호선 국회의원,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등 1만5000여 명이 동참했다.

도용 종정예하의 헌향·헌다·헌화에 이어 원로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한 원로위원, 총무원장 덕수 스님·종의회의장 세운 스님·감사원장 진덕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와 부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등 회원 종단 스님, 종의회 의원·참의원·각 사찰 신도회장·산하단체장 등은 헌향·헌화로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50주기를 추모했다.

이날 상월원각대조사의 육성 법문(1973년)을 들은 뒤 도용 종정예하는 대조사의 열반 50주기를 맞아 “소백산 연화성지 천태도량에 대조사님의 법향이 가득하니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크신 원력 법신으로 빛나는구나. ‘부처님은 오고 감이 끊어진 자리에서 중생을 위해 나투셨으니 찼다가 기우는 저 달과 같이 생사가 본래 공적하여 불생불멸이라.’ 전해주신 법의 등불 높이 받들어 거룩한 가르침 이 땅에 널리 펴서 불국정토 이룩하기를 서원하는 불자들이여. 정진하고 정진하여 일심청정을 이루어 국태민안과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며 보살의 행을 지극히 닦고 닦아 온 누리에 연꽃을 피워내기 바란다”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불교를 열어주신 대조사님의 원력을 받들어 종단의 발전, 국가·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대승보살도를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며 “열반 50주기 기념대법회를 맞아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며 열심히 정진해 국가와 민족에 이익을 주는 불교를 만들어야 한다. 천태불자는 모든 국민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중앙신도회장은 봉행사를 통해 “대조사님께서는 한 송이 연꽃으로 오셔서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이 거룩한 법석에 동참한 인연으로 우주 법계의 많은 생명을 남김없이 해탈케 하기를 염원한다”고 기원했다.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을 추모하는 각계각층의 추도사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열반 50주기를 마음을 다해 추모드린다. 오늘은 상월원각대조사께서 사바세계의 인연을 뒤로 하고 청정한 열반에 들어 생과 사가 둘이 아님을 보여 주신 날”이라고 추도했다. 이어 “일생을 제도에 이바지하시며 수많은 중생을 따뜻하게 품어, 크신 원력으로 새 시대 새 불교 운동을 일으키셨다. 대조사께서는 한 종단의 스승을 넘어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계신다. 저와 정부는 대조사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부회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천태종 대덕스님, 그리고 종도 여러분과 대조사님을 기리는 마음을 함께 나누며,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발원한다”고 추도한 후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국민의 화합과 인류 평화를 위한 밝은 이정표가 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현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 외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신동욱 국회의원 대독),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임호선·엄태영 국회의원이 추모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50주기를 추모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사진 오른쪽).

## 김제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임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경험 살려 역량 발휘를”**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 주지에 화평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산중총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금산사 주지 후보가 된 화평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산사에서도 역량을 잘 발휘해달라”며 “김제 불교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화평 스님은 “은사스님께서 애종심, 공심, 보살행을 평생 강조하셨다. 저도 애종심과 공심으로 소통하고 포교를 위한 보살행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화평 스님은 또 종단 핵심 종책인 ‘천년을세우다’ 불사금 3000만 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화평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다. 무우사, 심곡사, 서고사 주지를 지내고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 우원식에 여야 협치·민생 안정 당부

**진우 스님, 22대 국회 첫 본회의 앞서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의원에게 여야 협치와 민생 안정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6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예방을 받고 “국민의 삶과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잘 조율해서 선봉장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세계 10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국민 행복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정치인들이 뼈저리게 실감해 국민이 안정되도록 해줘야 한다”며 “정치경력과 노하우가 있으시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역사에 남는 의장이 되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은 “큰스님 말씀처럼 늘 갖고 있는 생각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의 가장 큰 무기가 돼야 한다는 신념도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잘 알고 있다. 들여다보면 민생대란 수준”이라며 “여야 간 이해의 차이는 있지만 민심을 잘 떠받들고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화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은 또 진우 스님이 정치인들에게 강조해온 선명상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저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우 스님은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때 지혜가 나온다. 국민 스스로 멘탈을 잡도록 선명상 프로그램을 국민운동으로 보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 조계종 재무부장에 여학 스님…국장단 인사도

**총무원 · 산하기관 교역직 임명**
**선임인 총무국장은 무일 스님**
**유산연구소 부소장 상원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유산연구소 부소장 상원 스님

조계종 총무원 새 재무부장에 불영사 주지를 역임한 여학 스님이 임명됐다. 더불어 총무원 국장급 인사가 단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과 산하기관 교역직 종무원을 임명했다. 한동안 공석이던 재무부장에는 여학 스님이 임명됐다. 국장급 인사는 총무·기획·재무·문화·호법 등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변화를 줬다. 이에 따라 △총무국장 무일 스님 △기획국장 석두 스님 △재무국장 도민 스님 △문화국장 신해 스님 △호법국장 향림 스님 △조사국장 명우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 명법·덕제·덕유·증진 스님 △사업국장 선안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대온 스님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덕상 스님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진허 스님 △연등회 사무국장 진용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금오 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부소장 상원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항상 화합을 염두에 두고 임명 받은 각자의 업무를 잘 파악해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무부장 여학 스님은 일운 스님을 은사로 1994년 수계했다. 불영사 천축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고 불영사 주지를 역임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상원 스님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했다. 군사찰인 호국한송사, 충국성불사, 기룡호국사, 보라매법당 등의 주지를 지냈으며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이다. 윤호섭 기자


##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1.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경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조직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

2. 신심이 깊고 덕망이 높은 불자로서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방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위와 같은 인사를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자로 모십니다.

○ 자격 요건 :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불자
○ 제출 서류 : ① 이력서 1부(사진 첨부, 상벌사항 기재, 서명 날인 포함)
②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 중심, A4 용지 3매 이내)
③ 경영계획서 1부(A4 용지 10매 이내)
④ 불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계증/신도증/기타/단, 공식적인 추천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 기간 : 2024년 7월 29일(월) 09시 ~ 8월 9일(금) 17시까지
○ 제출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문의 전화 02-719-1855)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 면접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